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 1995년 성탄절 ...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지난 주 22일(금) 교회학교 축하찬양으로
오늘(24일) 저녁은 임마누엘찬양대의 '메시아' 연주
성탄축하예배 내일 새벽 5시, 오전 9시, 11시에 본당에서



'96 신년부흥사경회

충현기도원에서는 1996년을 맞으며 '96 신년부흥사경회를 개최한다.

정석홍 목사(총회장)와 윤종일 목사(충현기도원 지도)를 강사로 열리는 이 부흥사경회는 96년 1월 2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충현기도원에서 모이게 된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며 시작한다는 것은 1년 동안의 삶을 위해 여러모로 유익할 것이다.

제5교구 성탄축하 모임

제5교구(교구장 박승준 장로)는 성탄절을 맞으며 제5교구 성탄축하 모임을 갖는다. 오늘(24일) 교구모임시간에 갖게 될 이 모임은 교구내 식구들 중 기약독주, 가족합창, 간증, 선물교환 등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서로를 알고 이해하며 또한 진정한 성탄축하와 의미 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제5교구는 특별절기 때마다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구 식구들과 함께 해왔다.

1995년도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에서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은 이제 온 인류가 지키는 명절이 되었다. 기독교에서는 이 성탄절을 부활절과 함께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다. 이처럼 온 인류의 가장 귀하고 성스러운 성탄절이 이제는 완전히 상업화되어 가고 향락화되어 가면서 오히려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

성탄절을 맞으며 믿는 우리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경건하고 참된 기쁨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평화와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이다.

교회에서는 지난 22일(금) 저녁 영아부부터 청년1부까지 교회학교 학생들의 성탄축하와 발표의 시간들을 가졌다. 함께한 학부모와 교사와 온 교인들이 기뻐하며 성탄을 축하하였고,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임마누엘찬양대 주례로 성탄축하 음악예배를 드리며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내일 성탄절에는 새벽 5시부터 새벽기도회와 오전 9시, 11시 세 차례에 걸쳐 성탄축하 예배를 드리게 된다. 특별히 새벽 5시에도 본당에서 김창인 원로목사의 인도로 성탄축하예배를 드린다. 오전 9시에는 이종대 목사가 이사야서 9장 5-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오전 11시에는 김창인 원로목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박사들처럼'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전하게 된다.

또한 각 교회학교에서는 성탄축하예배 및 성탄축하 프로그램으로 성탄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 유아부 어린이들의 성탄축하 모습

이승근 목사 소천

12월 20일(수), 미국 뉴욕에서

이한수 협동목사 안식년 휴가

이한수 협동목사는 충신신학대학원 교수들과 함께 12월 둘째, 셋째 주간 중 성지연수차 출국했다. 귀국하여 12월 31일(주일) 주일 I, II부 설교를 하시고 1996년부터는 1년 동안 충신신학대학원 교수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가서 연구하시게 되어 내년 1년은 우리 교회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동서울노회 주회 성경고사에서 입상

12월 16일(토) 작설 양문교회에서 실시된 동서울노회 주회 성경고사대회에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 학생 27명이 참가하여 10명이 입상하며 단체 준우승을 차지했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초등2부	1등 배성운
초등3부	3등 김정윤
초등5부	1등 조은영
	2등 계종원
	4등 주동진
중등1부	1등 양만석
	2등 이영환
	3등 박은경
중등2부	3등 정의주
장년부	2등 백영숙

12월 31일(주일) 특별제직회

교회는 12월 31일(주일) 특별제직회를 열어 1995년도 결산 및 19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12월31일(주일) IV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열리는 특별제직회에 온 제직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주간충현> 12월 31일자 휴간

12월 31일자 <주간충현>은 연말연시에 따른 업무 사정으로 휴간합니다.

예비신랑신부교육부 수강생 모집

매월 등록제로 개편 실시
미혼남녀에게도 개방

그동안 본교회 교우로서 결혼을 앞두고 8주 교육과정을 이수케하여 결혼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예비신랑신부교육부(예신부)가 1996년도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매주일마다 이루어지는 등록과 수료식을 내년부터 매월 첫주에만 등록하도록 개편하였다. 모두 8주과정인 예신부는 성경적인 결혼관, 결혼준비의 실제, 부부의 갈등과 해결, 배우자 가족

과의 관계, 예비부모의 준비, 법률상식, 의학상식 등의 과목을 강의와 성경공부로 나누어 교육하였는데, 수료생들로부터 좋은 결혼준비 기회가 되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결혼일자가 확정된 커플은 물론 본 교회 미혼 남녀 모두에게 개방되고 있는 본 과정은 매주일 오전 11시 ~ 12시 30분에 교육관 208호에서 모이고 있다.



충현장단

● 김창인 목사의 성탄절 메시지 ●

요셉처럼

(마 1:18-25)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와 슬픔에 잠겨있는 인생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악마의 쇠사슬에서 해방시키시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딸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 즉 외국의 대통령이나 임금님이 오신다면 그분을 영접할 사람들을 택해서 훈련시키고 그분을 잘 맞이하게 합니다. 하물며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악과 지옥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쓰시고 찾아오실 때에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만민을 구하러 오시는 그 때에 가장 가까이 모시고 영접한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시골에서 나무를 자르고, 까고, 똑딱똑딱 못질을 해서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집을 짓는 목수 청년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노동꾼 같고 천한 백성 취급을 당했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이었습니다. 땅 위에는 흉측망측한 온갖 죄를 다 범하면서도 자기는 옳다고 하는 자칭 의인도 있고, 속엔 더럽고 냄새나는 죄가 가득한데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하게 꾸미고 선전하는 외식하는 의인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옳은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말씀드릴 요셉은 자칭 의인도, 외식하는 의인도 아니고 비록 목수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의인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까?

1. 요셉은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승리자', 이겼다는 뜻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긴 승리자입니다. 요셉은 시골에서 목수일을 하는 총각으로 마침내 귀한 하나님의 딸이라고 인정되는 좋은 처녀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는 결혼 준비를 한다고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뱌다는 깜짝 놀란만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새파란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와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뱌다는 그 말을 듣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이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분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을 터인데 요셉의 얼굴빛은 똑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이 때에 요셉이 이 일

을 드러내면 자기도 망신을 더 할 것이고 큰일이 납니다. 그 때의 법은 처녀가 아기를 배었거나 낳는다면 두 말할 것도 없이 돌로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엄청난 말을 듣고도 드러내지 아니하는 마음이 넓고 부드럽고 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쁜 일을 만났을 때에 자랑하면서 떠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격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참된 의인의 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2. 요셉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꿇고자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니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끊기는 끊어야 되겠지만 혼자서 손해 당하고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손해를 당하면 남들은 바보라고 하겠지만 내가 만일에 이 일이 억울하다고 가만히 끊지 않고 선전을 해놓으면 그 처녀는 당장 돌에 맞아 죽을꺼야. 그러니 내가 물질에 손해 당하고 명예에 손해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 이렇게 요셉은 마리아와 자기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가만히 꿇을 수 있는 자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사정을 아는, 생명의 귀중성을 아는 사람만이 하는 일입니다. 요셉은 가만히 꿇을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봅니다. '그 처녀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처녀인데, 나쁜 짓은 안했을 터인데 대체 무슨 일일까?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만히 꿇는다는 말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나의 믿음, 나의 지식이 적은고로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합니다. 마침내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아, 네 약혼한 처녀 마리아 데려오는 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님으로 잉태되었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시고 만민을 구원하려고 오시는 높이신 구세주이시다. 그러므로 겁내지 말고 모셔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기를 원하고, 혼자 손해를 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천사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요셉은 승리자입니다. 혈기를 이긴 승리자입니다. 분한 마음을 이긴 승리자입니다. 요셉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져 하여 이 일을 생각(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즉시즉시 순종하는 생활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요셉은 만민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습니다.



3. 요셉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천사가 임했을 때에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순종합니다. 인류 역사에 한 번만 있을 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이미 있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도 아니고 인류역사에 꼭 한 번 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심하지 않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믿고, 천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믿고 당장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만한 자격이 없으나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주시고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성령충만함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리하여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때마침 로마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삭이 되어 곧 아기를 낳게 될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자기의 본적지로 갑니다. 그 때에 마리아가 때가 되매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을 하니 요셉은 천사의 지시한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는 요셉입니다. 즉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억했다가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그대로 이름을 짓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또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돌아갔을 때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내렸을 때에도 보통 사람 같으면 "날이 밝으면 가지요, 돈이나 좀 준비해 가지고 가지요. 내가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이니 사업 정리나 한 다음에 가지요" 그랬겠는데 요셉은 그날 밤 그 시간에 일어나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갑니다. 재산과 사업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는 자기의 책임이 천사의 지시대로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밤중에 일어나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피난가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순종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어려

운 일이 닥쳐옵니다.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에 당장 드러내고서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냐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높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멸지 않은 장래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땅 위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하늘이 돌돌 말려 갑니다. 땅덩어리가 부글부글 녹아납니다. 그럴 때에 준비한 사람만이 예수님 마중나갑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만이 재림하실 예수님 마중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의인이 됩시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의인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의인이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영육이 아울러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동시에 땅 위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마중나갈 준비하는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요셉은 승리자입니다. 혈기를 이긴 승리자, 분한 마음을 이긴 승리자입니다. 요셉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져 하여 이 일을 생각(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즉시즉시, 계속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요셉은 만민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습니다. "♪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인도함을 받으면서, 순종하고 억울한 일을 참으면서, 모르는 일 하나님께 기도도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갈 때에 할렐루야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높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며 생각하며》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의 자세

최영찬

(목사, 중동2부 지도, 교육연구소 부지도)

12월 달만 되면 왠지 마음이 들뜨고 나이 어린 소년들 같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이 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내 마음 속에는 아름답고 기쁜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교회 행사를 위해 성경을 암송하며, 연극을 준비하던 일로부터, 학생 시절에 중창 준비를 하며 서로 선물 교환하던 일, 그리고 새벽송을 들고나서 줄면서 예배드리던 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놓치기 싫은 아름다운 추억들이다. 어린 시절에는 이 날이 되면 눈을 반짝이면서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내가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하는 위치가 되었다. 요즈음 나는 마음 속으로 우리가 성탄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하며,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날에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 하는 문제가 가르치는 나에게 큰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이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 분의 탄생을 미리 보고 예언하였다. 그리고 그 분의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였다. 어떤 선지자들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분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맴기세대의 반차를 따를 "인류의 대 재사장"으로 오시는 메시야를 보았으며, 다른 사람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야를 바라보았다.

특히 이사야는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하여 나실 한 아가"를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그 분은 우리의 슬픔과 절고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며,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는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시를 따라 예언하였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분을 바라보며 그 분의 탄생을 축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사단은 헤롯의 세력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죽이



려고 칼을 갈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방 하나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일과 세상의 삶에 빠져 있었다. 그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다른 날과 별 차이가 없는 평범한 날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초대 받은 소수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리고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렸다. 처녀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지시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가까이 자신의 몸을 드렸으며, 요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기쁘게 그 아내를 도와 이 일에 협조하였다. 하늘에서는 천

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태한

백성들의 평화를 위하여 노래하였다.

그러면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오늘도 태한 백성을 삼키려는 사탄의 음흉한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이, 홍청망청 세상에 빠져 이 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경건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초청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알려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에도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소수의 무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중에는 마리아와 요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직접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동방박사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께 나아와 경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초청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목자들처럼 직장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올해에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듣고, 그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러 헌신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여 헤롯의 계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성령님의 인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 날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소식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힘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면, 우리는 올해에도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이루라." (눅2:14)

시

보고싶은 어머니

꿈속에서였다.
어머니! 어머니!

그 분
물 향라 적삼, 붉은 잔등
또 교목하나 한없이 평온함의 본체이신
어머님이셨다.

내 영혼을 일깨워
어딘지 모를 어머니의 초막에서
그 분은 내게 다시 열려 주셨다.
말해야!
울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쳐다보지 말라,
순응하라 한다, 사랑하라 한다,
그리고 감사하라 한다.

그 분!
내 어머니, 내 어머니의 사랑이여
나의 눈물 속 화상 안에 자리잡는

그 분의 적린 사랑의 편린들……

고쟁이 주머니 속에서 꺼내 주시던
접고 접은 지폐와 동전,
보리밥 도시락 속에 한 알 박은 삶은 달걀
손 재봉틀에 밤새워 꾸민 깃털은 교복
교문 앞에 홀로 우산 든 어머니
아아 그 이름 어머니
그런데도 모자라
에 밤 에 적막을 매고
눈물젖은 사랑을 또 주시옵니까?

어머니
한타깝도록 보고싶은 어머니!

박재귀(제2고교, 교사)

토·막·소·식

◆ 초등5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친척 집을 방문하거나 집을 떠나게 되는 어린이들은 선생님께 미리 연락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는 초등5부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당부이기도 하다.

또한 성탄절 예배는 오전 8시 50분 교육관 514호에서 주일예배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드린다.

◆ 고등부는 오랫동안 백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학생을 위해 지난 주일 교사들과 면려회 임원들이 함께 하여 성금 76만 5천원을 전달했다. 고등부 교사들은 지난 가을에도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해 왔다. 또한 헌혈증서를 수시로 수집하여 전달하고 있다.

고등부는 12월 25일(월) 성탄예배를 오전 8시 50분 갈릴리홀에서 드린다.

◆ 대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1월 15일 ~ 20일까지 동계나도선교를 준비 중이다. 또한 1월 8일에서 2월 1일까지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주최하는 중국단기선교도 함께 준비 중이다. 방학을 맞아 배낭여행도 좋은 경험이지만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을 하는 시기가 될 것

이기에 많은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청년1부는 한 해동안 교회 어른들을 돌아보는데 소홀했다는 반성과 함께 웃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모두가 함께 하기 위해 지난 주일 원로 장로와 시무장로들에게 떡과 과일을 준비하여 대접하며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육이 청년1부에서는 96년 1월 8일(월)~1월 10일(수)까지 나도·오지선교를 준비하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복음의 소외지 나도·오지에 복음을 전하며 후원자를 발굴하고 신학생과 연합하여 선교사역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 나도·오지 선교에 성도들의 관심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청년2부는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여 발표했다. 회장에 조요셉, 부회장에 홍석용, 윤필순이다.

◆ 새가정부는 12월말을 바쁘게 보내고 있다. 12월 24일(오늘) 선물교환, 25일(월) 성탄절, 31일(주일) 수로식을 준비하고 있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목사를 속히 허락하소서.
2.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12/25(월) 성탄절 새벽기도회, 성탄예배 설교
3.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소서.
6.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서만수 선교사의 건강이(신장)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7.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직분과 봉사를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줄 알게 되면서



선교에 대한 경험과 바른 인식

정의홍
(선교연구원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어느 선교의 밤에 이 말씀을 봉독하게 되었는데 그 때에는 별다른 생각없이 그저 계획된 순서에 의하여 봉독하였고 또 오랫동안 그 일을 잊고 지냈었다. 그러던 중에 서만수 선교사님께서 지원하시는 인도네시아 자바 중부 지역의 개척교회 헌당식 및 유치원 개원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서만수 선교사님과 다른 일행과 함께 현지에서 가서 그들의 실정을 직접 피부로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

선교사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과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실정을 알아야 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맞추어서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의 차이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경험과 지혜도 필요하고 우선 순위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 실정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을 드린다.

이제 돌아와 가족과 함께 고국에서

지내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겠다. 타국에서의 생활은 어려움이 많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첫째로 꿈을 수 있는 것은 비자문제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어느 나라이든 그 나라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제일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비자문제인 것으로 안다.

회교권에서도 최대의 인구와, 방대한 자원과, 광활한 지역과, 많은 종족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선교위원회 산하 선교연구원원이 있어 선교에 뜻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누구든지 참여하여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하고 미래의 평신도 선교사로 훈련하고 있음을 알고 참여하게 되어 오늘도 공부를 하고 있다.

찬송을 부르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선교현장에 경험이 있으신 선교사님을 모시고 산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는 선교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선교란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무엇이 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 평신도 선교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임을 받은 직분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며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함으로써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선교연구원에서는 매년마다 1회의 선교탐방을 통하여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직접 만나보고 현지 사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도 있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95년도에는 8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필리핀을 다녀왔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애쓰고 힘써 노력하는 그 모습이 선교부원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여 선교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 불길이 선교연구원만의 것이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에 걸맞는 선교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가

부가 있을 수 없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선교를 외치면서도 선교연구원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늘 아쉬움을 느꼈으며 이제는 우리 모두 동참하여서 선교의 불길을 당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교에 뜻을 둔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선교의 사명을 띄고 세계 어느곳에든지 힘차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주님, 오늘도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힘써 일하는 충성스런 주의 종들에게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남아있는 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가노라”(빌 3:14)를 외치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泡
叔主聖誕
萬福無疆

敬啟者 聖誕快樂
우리는 母教 恩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母教 恩을 받기 위하여
모든 人을 위하여 福音을 전합니다
“주님, 오늘도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힘써 일하는 충성스런 주의 종들에게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남아있는 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I hope
Christmas brings
the
NICEST THINGS!

감사합니다. 모든 人을 위하여
주님, 오늘도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힘써 일하는 충성스런 주의 종들에게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남아있는 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간 총현>에 온 독자의 카드

지금산 장로는 시무장로로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1979년 미국으로 이민 갔다.